

# 드라마 < 옥씨남정기 > 에서 나타나는 서번트리더십 분석

김준  
예원예술대학교

## Analysis on servant leadership on Korean soap opera < Ukssinamjeonggi >

Joon Kim

The Faculty of Liberal Arts, Yewon Arts University

요 약 이 논문은 리더십이 어떻게 대중들에게 소통하고 교감하여 정서구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리더십은 다양한 계층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리더에 대한 관심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대중에게 친근하고 쉽게 접근하여 교감하고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체인 드라마는 동시대의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욕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리더십을 분석하면 대중들에게 어떠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서번트리더십이론 중에서도 리더에게 필요한 요소를 유형화 시킨 Spears의 서번트리더십 요소를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직장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인간관계를 해결해 나가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드라마 < 옥씨남정기 > 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로는 서번트리더십 요소 중에 경청·공감·치유·인지·비전 제시 요소는 하위 구성원들이 스스로 잠재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요소로 나타났으며, 비전 제시·설득·인지·통찰은 상위 구성원들에게서 주로 나타났다. 서번트리더십은 중간관리자를 통해 소통하고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때 가장 효율적이었다.

주제어 : 리더십, 공감, 비전, 청지기 의식, 공동체

**Abstract** This thesis is a study about how leadership communicates and interacts with the public and affects structure of emotions. Leadership has been paid attention by various strata, and interest about leader is gradually getting higher throughout overall society. In this situation, drama that is a medium that approaches to the general public friendly and easily and affects emotionally the public suggests problems about overall contemporary society and culture and plays a role to solve the desire. Therefore, if we analyze leadership that appears on drama, we may grasp directional nature and meaning about which figure of the leader it shows. As a research method, we use Spear's servant leadership factors, who categorized factors necessary for leaders. A soap opera named Ukssinamjeonggi that pursues a common goal to solve affairs and problems in relationships among members in an organization is selected as the analytic subje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listening, empathy, healing, awareness, and conceptualization which are factors of servant leadership turn out to be the factors that help subordinates demonstrate their potentials; conceptualization, persuasion, awareness, and foresight are usually shown by supervisors. Servant leadership was the most effective when a leader communicates with members through middle managers to grow the community.

**Key Words** : Leadership, Sympathy, Vision, Stewardship, Community

Received 27 October 2016, Revised 30 November 2016  
Accepted 20 January 2017, Published 28 Jan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Joon Kim  
(The Faculty of Liberal Arts, Yewon Arts University)  
Email: sulsong3@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리더십은 사회·정치·교육 등 다양한 계층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존경 받는 리더에 대해 주목한다. 연예계에서는 특정한 연예인에 대한 리더십, 정계는 대통령 리더십, 경제계에 유명한 재벌총수들의 리더십, 어린이들에게는 동화에서부터 리더십교육, 그리고 대학과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리더십 세미나 등등 수없이 많은 행사들과 책으로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사회 전반에 걸쳐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측정한 수치에 따르면 뛰어난 인재 속에서 리더는 8%에서 10%가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1]. 리더십이론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현재까지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Tannenbaum, Weshir와 Massarik(1961), Koontz와 O'Donnel (1984), Terry(1982)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도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한다[2]. 즉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서 공동된 목표를 향해 이끌어주는 역할이 리더십인 것이다. 그렇다면 대중들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일상에서 리더십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대중매체는 신문, 라디오, TV방송, 인터넷 등으로 대중들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즐겨보는 드라마는 우리 문화와 사회 전반에 관한 내용과 소설, 그리고 만화에 걸쳐 다양한 층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드라마는 대중에게 가장 쉽게 노출되고, 동시대의 욕망과 사회문화, 각종 문제들을 표출한다. “규율과 통제, 소외와 갈등의 시대인 1960년대, 규제와 억압, 저항의 시대인 1970년대, 희망과 좌절, 정치문화의 과도기인 1980년대, 문화정치, 경제의 좌절기인 1990년대로 분류되면서 당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정치, 윤리 등 한국적 가치관을 표상[3]”해 온 바 있다. 대중에게 친근하고 쉽게 접근하여 교감하고 경험하는 매체인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리더십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분석을 한다면 대중들에게 어떠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논문은 리더십이 어떻게 대중들에게 소통하고 교감하여 정서구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문제를 드라마를 통해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 1.2 연구 방법

리더의 기본자세는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중재자의 역할이다. 서번트리더십은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론이다. 이에 서번트리더십을 중심 이론으로 하여 분석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는 2016년 3월 18일부터 2016년 5월 7일까지 JTBC에서 방영된 텔레비전 드라마 <옥씨남정기>이다. <옥씨남정기>는 직장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인간관계를 해결해 나가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드라마이다. 이러한 구조는 리더십을 분석하기에 적합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드라마 <옥씨남정기>를 통하여 리더십을 분석한다면, 등장인물들 관계의 정서적 요소와 의사소통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어떠한 리더십 요소가 작용하는지가 나타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리더십의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서번트리더십은 1977년 로버트 그린리프가 저술한 <Servant Leadership>에서 제기되었고, 1996년 <서번트 리더 되기> 출간 후 많이 알려진 이론이며 선행연구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4]. 서번트리더십이론 중에서도 리더에게 필요한 요소를 유형화 시킨 Spears의 서번트리더십 요소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1 서번트리더십

서번트리더십은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구성원들 간의 개성과 다양성을 포용하여 개개인이 드러내지 못한 잠재력을 일깨워 성취욕을 고취시키고 구성원들이 능력을 발휘하여 자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나가는 데 필요한 리더십이다[5].

### 2.2 서번트리더십 요소

#### 2.2.1 경청(Listening)

경청은 서번트리더십에서 기본적인 자질로 구성원의

의견을 주위 깊게 듣는 행위이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동의 목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문제점을 구성원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다[6].

2.2.2 공감(Empathy)

공감은 이해와 존중이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서로에 관한 교감으로 이루어진다. 구성원에게 질문하고 대화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인식하는 것이다[7].

2.2.3 치유(Healing)

치유는 업무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압박에 대한 배려와 격려를 통하여 구성원의 감정적인 상처나 좌절감에서 회복하여 다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8].

2.2.4 설득(Persuasion)

설득은 강압에 의한 설득이 아닌 질문과 이해를 통해서 상대방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 동의 할 때 설득이 효과적으로 나타난다[9].

2.2.5 인지(Awareness)

인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며, 자아정체성 자존감,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주변 환경과 상황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다[10].

2.2.6 통찰(Foresight)

통찰은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에 전개 될 일을 미리 예견하는 지혜인 선견지명이다[11].

2.2.7 비전제시(Conceptualization)

비전 제시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구성원들을 이끌어 가는 힘이다.

2.2.8 청지기의식(Stewardship)

청지기의식은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일꾼의식으로 도덕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노력이다[12].

2.2.9 구성원의 성장(Commitment to growth)

구성원의 성장은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바탕이 되어야 구성원의 성장이 나타난다. 구성원 개인이 새로운

일의 도전해서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성취감으로 이어질 때 성장하는 것이다[5].

2.2.10 공동체 형성(Community Building)

공동체 형성은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와 그 일에 대한 의미를 함께 공유하여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이다 [13]. 인간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로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3. 분석

3.1 <옥씨남정기>

<옥씨남정기>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를 소재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갑과 을의 관계들을 중심으로 무거운 주제를 코믹하게 그려낸 드라마이다. 남정기와 옥다정이 사건을 해결해 가는 주요인물이며 이들이 구성원과 함께 하청업체에서 벗어나 자체 브랜드를 생산하고자 하는 공동의 회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작품에서 나오는 러블리 코스메틱의 구성원 중심으로 서번트리더십 요소를 통하여 서번트리더십이 구성원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3.2 <옥씨남정기> 등장인물 설정 분석

<옥씨남정기>에서 나타난 등장인물 설정을 서번트리더십 요소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Table 1> Analysis Character Create

(Uksinamjeonggi)	Daejeong Wook	Jeonggi nam	Dongju Jo	Youngi Han	Hyunwoo Park	Mi-jang	Sh Team Leader
Listening		○			○		
Empathy		○		○	○		
Healing							
Persuasion		○					
Awareness	○	○		○		○	
Foresight	○						
Conceptualization	○						
Stewardship		○					
Commitment to growth		○					
Community Building		○					

<Table 1>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는 옥다정은 카리스마가 강한 여성으로 의지와 윤리관이 투철하여 불의에 참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나 다른 사람과 타협하거나 소통에 문제가 있는 유형이다. 남정기는 소심한 성격으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

지만 공로는 다른 사람이 가로채고 업무에 치이며 자기 주관을 드러내지 못한다. 회사에 대한 청지기 의식과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의식이 있으며,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친화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개인사생활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의 치유 능력은 부족한 유형이다. 조동규는 회사 대표이긴 하지만 구성원들을 이끌어 가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결단력 없는 인물이다. 그는 친인척인 신탄장과 발주회사인 황금화학, 그리고 옥다정의 눈치를 보는 비굴하고 약한 사장의 유형이다. 한영미는 직원들 사정에 공감하는 유형으로 상황의 인지가 빠르다. 그러나 육아문제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해서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유형이다. 박현우는 말단직원으로 학자금 대출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한 인물이다. 그는 회사가 잘못되거나 퇴사하게 될까봐 자신의 능력향상보다는 상사들 눈치를 보는 소극적인 유형이다. 장미리는 계약직 사원으로 정직원으로 전환에 대한 욕망과 차별대우에 관한 불만이 강한 인물이다. 그녀는 신탄장에 의해 정직원 전환을 미끼로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한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며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공감하기를 바라는 유형이다. 신탄장은 조동규의 친척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그는 회사 내에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인사사고파를 무기로 규제와 통제를 하며 권리를 남용하는 유형이다.

### 3.3 <옥씨남정기> 등장인물 변화 분석

<옥씨남정기>에서 나타난 등장인물 변화를 서번트리더십 요소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2> 과 같다.

<Table 2> Analysis Character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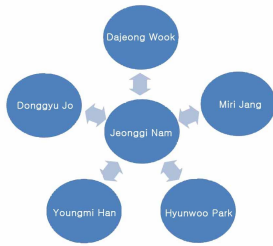
Uksipmoneoral	Dabona Mok	Jongseol Nam	Donsu Jo	Youngh Han	Huansoo Park	Mi Jang	Se Team Leader
Listening	○	○	○		○		
Empathy	○	○	○	○	○	○	○
Healing	○	○	○	○			
Persuasion		○					
Awareness	○	○	○	○	○	○	○
Forecast	○	○					
Conceptualization	○	○	○				
Stewardship	○	○	○	○	○	○	○
Commitment to growth	○	○	○	○	○	○	○
Community Building	○	○	○	○	○	○	○

<Table 2>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로 옥다정은 러블리 코스메틱으로 이직하면서 황금화학과는 다른 구성원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분개한다. 하지만 남정기과장의 희

생적인 봉사에 대한 영향으로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경청하게 되며 공감하게 된다. 옥다정은 남정기과장의 동생인 남봉기를 이용하여 구성원들을 보살펴주는 치유역할을 지시한다. 그녀는 일에 대한 성취 의식을 일깨워 구성원들의 성장시키는 공동체형성을 목표로 한다. 남정기는 옥다정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고 불의에 대항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그는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에 찬 일들을 진행하고 비전을 제시한다. 이로인해 그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인정을 받는 서번트리더십을 발휘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조동규는 독단적인 결정으로 회사를 파산의 위기까지 몰아간 인물이다. 그는 사건을 해결하면서 자신의 회사가 아닌 구성원들과 같이 이루어낸 회사인 걸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알아간다. 조동규는 모든 일을 독단이 아닌 경청라고 공감하며 구성원들의 도움으로 다시 성장하여, 진정한 청지기의식과 공동체를 구성한다. 한영미는 육아와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부적절한 청탁 선물로 인한 사건으로 퇴직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옥다정의 도움과 구성원들의 믿음으로 인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청지기의식과 구성원들의 성장, 그리고 공동체형성에 참여한다. 박현우는 학자금대출로 인한 스트레스로 회사가 잘못되어 실직의 걱정을 하는 인물이었으나, 장미리와 신탄장의 성추행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일보다는 동료의 일을 걱정하게 되고 남정기과장과 공감을 이루며 진정한 청지기의식으로 발전한다. 장미리는 항상 계약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으나 성추행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위치와 구성원들의 공감을 인식한다. 이를 계기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업무에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는 구성원으로 성장한다. 이 결과로 그녀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신탄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친인척이라는 무기로 구성원들에게 갑질한다. 그는 동료들을 괴롭히는 인물로 장미리에게 성추행하면서 퇴사하게 된다. 하지만 결국 회사의 존폐의 위기에서 친인척의 도움을 얻어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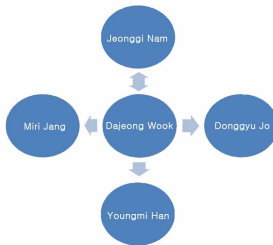
### 3.4 <옥씨남정기> 등장인물 영향 분석

서번트리더십에는 리더와 구성원 사이에 분명한 인간 관계가 있다[14]. <옥씨남정기>에서 나타난 등장인물 중에서 구성원들에게 변화하게 만든 남정기와 옥다정의 영향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Fig. 1] The influence of Jeonggi Nam

남정기는 육다정에게 타협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독선적인 성격을 다른 이들과 공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남정기는 조동규에게 회사를 향한 청지기의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는 회사를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닌 구성원들의 합심의 결과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의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에게만 배려하던 모습에서 점점 자신의 직업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여 성취감을 얻고 미래에 대한 자기 발전을 확대하는 요소로 나타난다[15]. 조동규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책임의식에 대한 치유 역할을 한다. 남정기는 한영미와 박현우, 정미리에게 상사로서 연구하고 노력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공동체의식인 연대감, 이타성, 타인의 배려, 공동체 규범을 고취시키고 [16], 스스로 잠재력을 끌어내고 청지기의식이 생기게 된다. 남정기의 영향을 받은 구성원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하지만 남정기는 신팀장과의 교류는 보이지 않는다. 남정기는 신팀장외의 구성원들과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여 쌍방향성인 인간관계를 구축하며 서번트리더십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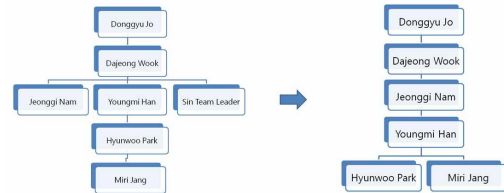
[Fig. 2] The influence of Dajeong Wook

육다정은 리블리코스메틱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낸 인물이다. 육다정은 남정기에게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을 인지하게 하고 통찰력을 일깨워주며 소심한 성격의 문제

를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육다정은 조동규에게 부정부패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그녀는 바른 위치에서 경청하고 공감하는 치유의 역할을 한다. 육다정은 한영미에게 육아의 과중한 업무의 스트레스를 치유하여 자신을 인지하고 구성원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육다정은 정미리에게 성추행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육다정은 회사의 미래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고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지만 그녀는 서로 소통하여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건을 뒤에서 해결하는 유형으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변혁적인 리더십이 강하게 나타났다. 남정기는 구성원 스스로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지만, 육다정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믿음직한 인물이나 독선적인 카리스마 있는 역할로 설득보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육다정은 남정기에게는 업무적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트라우마에 대해 도움을 받고 주는 쌍방향성의 치유가 나타나지만, 다른 구성원들과는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일방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 3.5 <육씨남정기> 구성원 조직변화

<육씨남정기>에서 나타난 조직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Fig. 3] Organizational Change

조직 변화는 남정기 과장이 부장으로 승진하고 정미리는 정직원으로 전환되었고 신팀장은 퇴사하였다. 이 조직도와 서번트리더십의 관계를 살펴보면 서번트리더십 요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남정기는 부장으로 중간 관리자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로는 육다정과 조동규 사장을 섬기고 아래로는 한영미, 박현우, 정미리에 대한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구조가 나타났다.

#### 4. 결론

서번트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이다[17]. <옥씨남정기>에서 나타난 서번트리더십은 주로 남정기를 통해서 나타났다. 남정기의 리더십으로 인해 다른 구성원들도 서번트리더십 요소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위 구성원들과 하위 구성원들의 소통 관계는 중간구성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중간관리자는 설정부터 청지기 의식과 구성원의 성장, 그리고 공동체형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 외에 서번트리더십 다른 요소들은 인간관계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서번트리더십 요소는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조직 몰입도를 높이고, 상사에 대한 신뢰와 회사에 대한 성과를 이끌어냄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높아진 식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구성원은 경청과 공감, 치유, 그리고 통찰 요소로 비전을 제시한다. 상위구성원들은 이 요소들로 구성원의 성장을 돕고 청지기 의식을 고취시키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옥다정의 역할이 중요하였는데, 이것은 유지해오던 체제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개혁해야 할 수 있다는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은 하위구성원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소통에 의한 변화가 아닌, 옥다정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카리스마적인 해결방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해결방식은 급박한 상황에서 정확한 지시로 극적인 해결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능동적이며 지속적으로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상승시키지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은 서번트리더십 요소 중에 경청, 공감, 치유, 인지, 비전 제시 요소는 하위 구성원들이 스스로 잠재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비전제시, 설득, 인지, 통찰은 상위 구성원들에게서 주로 나타났다. 서번트리더십 요소는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중간관리자가 서번트리더십으로 소통하고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때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REFERENCES

[1] John Mattone, translated by Woonsung Yoon, Gwangsoon Kim, Junetaek Woo, Jaeyeon Lee, Gyun Sun Baek,

Gyunghwa Yang, Wangsoo Kim, "Wisdom Leadership : Enneagram", p. 6, Korea Enneagram Research lab, 2014.

[2] Tannenbaum, "Weschler & Massarik, Leadership is interpersonal influence, exercised in a situation, and directed", through the communication process, p. 24, toward the attainment of a specified goal or goals, 1961.

[3] Younghee Jeong, "Change in Korean Society and Television Drama", p. 5 Communications book, 2005

[4] Inkyung Hwang, "Development of Servant Leadership of Middle Manager and Team Accomplishment", p. 5, Korea advanced institute for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2001.

[5] Robert K, Greenleaf, translated by Juheon Kang, "Leader is Servant", p. 96-98, Chamsol, 2001.

[6] [https://www.essr.net/~jafundo/mestrado\\_materialit\\_gjkhnd/IV/Lideran%C3%A7as/The%20Servant%20as%20Leader.pdf](https://www.essr.net/~jafundo/mestrado_materialit_gjkhnd/IV/Lideran%C3%A7as/The%20Servant%20as%20Leader.pdf) (July 14, 2016)

[7] Boyer G. B, "Turning points in the development of male servant-lead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Fielding Institute, 1999.

[8] Spears L. C, "Reflection on leadership: How Robert K. Greenleaf's theory of servant-leadership influenced today's top management thinker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95.

[9] Greenleaf, R.K, "Sevant leadership: A journey into the nature of legitimate power and greatness", New York: Paulist Press, 1996.

[10] Inkyung Hwang, "Development of Servant Leadership of Middle Manager and Team Accomplishment", p 13, Korea advanced institute for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2001.

[11] <http://hanja.naver.com/word?query=%E5%85%88%E8%A6%8B%E4%B9%8B%E6%98%8E> (July 07, 2016)

[1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75735&categoryId=51365> (July 11, 2016)

[13] Lave J. "Trust: The invaluable asset, In Spears, L.C.(Ed), Insights on leadership: Service, stewardship, spirit, and sevant-leadership", New York: John

Wiley&Sons, pp. 72-76, Inc 1998.

- [14] Anyoungjin, Aneunjeong, "Leadership for a peaceful life worth", p.24, JeongMin Publisher, 2009.
- [15] Kyoung-Mi Yang,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1, pp. 114, 2016.
- [16] Tae-Seog Jeong, "A study on Convergence School Adjustment and Parameter Validation of the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1, pp. 184, 2016.
- [17] Gwanung Lee, "The secret of servant leadership for building trust in the company and its employees", p. 114, Nexus BIZ, 2010.

김 준(Kim, Joon)



- 2001년 2월 :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 2009년 2월 :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 2014년 8월 ~ 현재 : 예원예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마케팅, 인사조직
- E-Mail : sulsong3@hanmail.net